

지역 소식 — FSY 특집호

6~13쪽에 FSY 특집 기사 게재

북 아시아 지역

지역 계획 2016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지역 계획 2016 시리즈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함

지역 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개종을 심화함'에 관해 이야기하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
스코트 디 와이팅



뿌리 깊은 나무

와이팅 회장:

“여러 해 전에 하와이에서 살았을 때 태풍이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폭풍우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나무가 쓰러져있는 가운데 몇몇 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무들의 뿌리 깊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얇으면 나무는 쉽게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다면 나무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후기 성도로서 깊게 뿌리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커져가는 세속적인 악과 사탄의 유혹이란 폭풍우와 파도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견디려면 우리의 간증이 깊어야 합니다.”

와이팅 회장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상기시켰습니다.¹ 이 비유에서 씨앗은 각각 종류가 다른 네 가지 토양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린 씨,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 씨,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한 씨,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맺은 씨.

“우리는 간증을 키워 씨앗이 토양에,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언젠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증한다 함은 (진리를) 알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개심한다는 것은 (간증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더 얇은 뿌리입니다. 더 깊이 뿌리 내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² 그래야 큰 태풍이 올 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간증과 개종—열 처녀의 비유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등’을 ‘간증의 등’으로 그리고 ‘기름’을 ‘개종의 기름’으로 바꾸어 열 처녀의 비유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³ 이렇게 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간증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간증의] 등을 가지되 [개종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개종의] 기름을 담아 [간증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간증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간증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개종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

이렇게 읽으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종이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의) 등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종의) 기름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예수님께 초대를 받은 교회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 회원들 중 절반만이 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종이 참으로 중요함을 배웁니다. 간증 자체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간증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간증의 뿌리를 점차 깊게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날)은 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폭풍우)가 더욱 강해지리란 걸 느낍니다.”

개종하게 됨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간증의 등을 깊이 뿌리 내리고, 개종의 기름을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은 전 세계의 개종을 심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북 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은 신회원과 구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개척자 중 한 명일지라도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간증만을 가졌다면 우리는 여전히 열려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먼저 간증을 얻지 않고도 참된 개종을 경험한 몇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의 아들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유형의 개종은 드물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끔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개종을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에 성찬 모임에 참석하여 빵과 물을 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경전을 읽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전에 참석하여 조상들을 위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성전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개종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엘리야의 영을 느끼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종을 심화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우리의 개종에는 단지 하나의 요소가 아닌 수 많은 요소들이 모여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임 선교사였을 때 저는 그 점에 대해 언제나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탁자를 간증이라 한다면, 적어도 세 다리가 있어야 지탱됩니다. 한 다리는 경전을 읽는 것이고, 또 한 다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마지막 다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라는 다리 하나만 있다면 간증은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모두 한다면 간증이 한층 강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 다리인 깊이 생각함을 통해 간증의 등이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개종의 기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다리가 필요합니다. 나무와 마찬가지로, 뿌리 하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굳게 서 있으려면 여러 뿌리가 체계(조직) 안에서 얹히고설켜 있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함

세 다리 중에서 읽기와 기도하기는 모세의 율법과도 공통된 외양적인 행위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었는지 기도했는지는 증거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깊이 생각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가장 높은 율법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와이팅 회장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계시인 교리와 성약 138편을 깊이 생각함의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계시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그분은 방에서 경전을 읽으며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2~3절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5~6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스미스 회장의 마음은 여러 가지 것으로 ‘되돌아갔으며’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11절. ‘(그분이) ...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의) 이해의 눈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나무가 쓰러져있는 가운데
몇몇 나무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북 아시아 지역
지역 계획 2016



열렸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좁은 시야가 확대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경전을 읽으며, 그것에 대해 되도록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숙고할 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이 구절이 경전에 실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워야할까?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제 생각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저는 자신에게 묻는 이러한 질문이 없다면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몽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관련없는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함이란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경전을 읽으며 깊이 생각할 때, 한 구절을 읽고 생각하는 데 때로 한 시간 가량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할 때 계시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리어 ...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⁴ 니파이는 정말로 아버지(리하이)의 시현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니파이가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다른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힐라멘서에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 주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을 향하여 자기 길을 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니파이인 백성들의 간악함, 곧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과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불의로 인하여 많이 의기소침하여-그가 이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⁵

마지막으로 조셉 스미스의 예입니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있었다. ...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⁶ 이 경험은 조셉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도록 타고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소음을 들으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느라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습 끝에 저는 점차 제 생각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상고한다면, 즉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신성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개종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간증은 작은 계시를 통해 점차 더욱 깊어져 마침내 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종이 깊어질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되고 우리의 개종이 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모두가 그러한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림

와이팅 회장은 물문경에서 두 대조적인 시기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모사이야서 5장에서 베냐민 왕이 대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⁷ 개종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큰 변화가 마음 가운데 이뤄져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린아이였던 다음 세대 사람들은 자라난 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사이아서 26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⁸

5장을 읽을 때 사람들이 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26장을 읽을 때 자녀들이 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족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가정에서 경전 읽기를 잊어버렸거나 개종의 느낌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잊습니다. 경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었는지 혹은 기도했는지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자녀들 역시 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문화가 개종의 문화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세미나리에 가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제3니파이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잊지 않았습니 다. 그들의 자녀들도 또한 기억했습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그 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200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악함이 없었습니다.⁹ 모든 사람이 개종했고 매일 가족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개종 문화가 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00년간은 미리보는 복천년으로, 극히 드문 시기였습니다."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레이맨과 레뮤엘은 계시를 받았고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간증의 등이 있었지만, 개종의 기쁨이 부족했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문경의 증인들도 또한 손으로 금판을 만져보고 계시를 받는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간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개종을 심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천사를 본 것만으로는 완전히 개종했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느꼈던 느낌을 잊어버리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¹⁰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때 우리에게 중요했던 지식을 잊어 버렸거나, 그런 지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미래에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세상의 유행에 반대되는 조언을 더 자주 하실 것입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런 조언을 더욱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어올 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주

1. 마태복음 13:3~9, 18~23 참조.
2. 델린 에이치 옥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참조, 또한 제3니파이 27:27 참조.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아왔고"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참조, 또한 마태복음 25:1~13 참조.
4. 니파이전서 11:1, 강조체 추가.
5. 힐라멘서 10:2~3, 강조체 추가.
6. 조셉 스미스—역사 1:11~12, 강조체 추가.
7. 모사이아서 5:2
8. 모사이아서 26:1~3 참조
9. 제3니파이 11장부터 제4니파이 1:23까지 참조
10. 에베소서 4:14



단풍요가족

“권유한다”



대 회 참가자(청소년), 조 고문 등
운영 위원회, 준비 위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보여 주신 여러분의
모범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멀리서
기도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참가자
부모님들과 신권 지도자들도
감사드립니다.

2016 FSY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대회를 마치며 저는 대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이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작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목격할 수



있음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대회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눈빛은
매일매일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기대에
찔던 눈빛, 잠시 더위에 지쳤다가 금세
즐거움과 흥분으로 반짝이던 눈빛,
점차 행복으로 가득해지던 많은 눈빛들.
청소년들은 이제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조 고문이 되어 참가자들을
이끄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부드럽고 세미한 영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개인적인
계시)가 전달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자라나는 세대가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대회 전, 대회
중, 대회 후, 언제나 높은 표준과 태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FSY 대회와는
달리 현실의 삶은 더 큰 시련과 유혹이
많지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
201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고, 계속 성장하십시오. 하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와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참 좋은 점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늘 성공하지는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

대회 운영 위원장 한승룡 형제 이정자 자매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

(니파이후서 31:20)

2016 FSY KOREA 특집 기사: 6쪽에서 13쪽까지 게재



한 여름 밤의 꿈만 같던 2016년 한국 FSY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로 준비시키는 이 대회의 의미가 실현되어, 1,0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5박 6일간의 영적인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해 온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대회의 강력한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참가자와 지도자들은 함께 복음을 공부했고, 신앙대로 사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대회 주제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몇몇 참가자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중심에 계속 서 있고자 하는 그들의 의로운 열망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영적으로 고양되게 했습니다. 많은 구도자 및 저활동 청소년들이 대회를 통해 개심했으며, 복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지역 칠십인 등 모든 지도자들은 대회를 친절과 온화함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하늘의 힘이 함께했고,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이 임하며 모든 참가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흡족히 취했습니다.

주로 신권 지도자로 구성된 준비 위원회는 FSY 지침에 따라 대회 시작 14개월 전부터 기도와 신앙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성신처럼, 준비 위원들의 수고와

신앙은 홍보, 재료, 식품, 숙박, 시설, 안전, 의료 등 각자의 분야에서 대회가 온전히 진행되게 도왔습니다.

FSY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평생 지녀야 할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FSY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며 일상과 교회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연습과 발전의 연장선 위에서 다음에 열릴 FSY 대회로 향합니다. ■

대회 준비 위원장 정한 형제



7 월 23 ~ 24 일 (토 , 일)

조 고문 마지막 훈련 모임

대회 시작 전날, 사랑한다

토 요일인 23일, 대회 장소인 속리산 유스타уне에 모인 조 고문들의 얼굴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맴돌았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린 마지막 조 고문 훈련 모임을 통해 그동안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다.

23일 토요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각 조 고문들은 주로 자신의 연합조 고문을 만나 목표와 방향을 협의하고 함께 진행할 공과와 활동을 맞춰보았고, 무도회의 춤을 연습하기도 했다. 24일 일요일에는 성찬식과 안식일 모임, 운영 위원장 부부 영적 모임과 노변의 모임 등이 진행되어,

조 고문과 운영 위원 및 보조들은 자신을 정돈하고 대회 준비를 마무리했다.

조 고문들은 한 주 전에 자신이 담당하게 될 참가자들, 즉 조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배부받았으며, 각 조원들에게 이미 전화 인사를 마친 상태였다. 조 고문인 하성준 형제는 이렇게 느낌을 나눴다. “제 담당 조원들이 중학생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갑기 교차하고 솔직히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조원들이 FSY가 기대된다며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격려가 정말 고마웠고, 그들이



값진 간증을 쌓도록 돕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SMYC, EFY 등 예전 대회에 청소년으로 참가했던 조 고문들은 그 시절 자신의 조 고문이 주었던 **사랑**을 떠올려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조원들의 다정했던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 고문들의 마음에 조건없는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다. ■

첫째 날, 단순화한다

월요일, 지난 14개월의 준비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참가자(청소년)와 부모, 청소년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대를 안고, 2016 FSY의 막이 올랐다. 대회가 열린 곳은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유스타운'이라는 청소년 수련원이었다.

약 770명의 참가자들은 청남 43조, 청녀 43조로 나뉘어 각기 배정된 숙소에서 조 고문을 기다렸다. 한 숙소의 방문이 열리며 낯선 청년 독신 자매가 들어왔다. 모여 있던 청녀들이 일제히 질문했다. “우리 조 고문이세요?” “네, 맞아요.” “우와, 조 고문님께 박수!” 열정적인 환대를 받으며, 조 고문의 긴장한 얼굴이 행복한 미소로 바뀌었다. 숙소에 둘러앉아 조 고문이 대회 관련 기본 사항들을 안내하자, 조원들은 아기 새가 어미 새를 보는 것처럼 존경과 사랑을 담아 조 고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참가자들을 향한 조 고문의 시선에는 사랑이 듬뿍 묻어났다.

‘조 고문 만나기’가 끝난 뒤 연합조와 만난 청남 청녀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회 기간 동안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목표들도

있지만, 참가자들이 세운 목표는 대체로 매우 **단순**했다. 예를 들어 어떤 연합조는, “매일 밤 함께 기도하기, 매일 조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주 대화하기, 매일 힘들 때, 서로 눈이 마주칠 때 웃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단순**하지만 훌륭한 효과가 기대되는 목표들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집합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31도(℃)의 기온, 습도 68%의 폭염 속에, 참가자들은 실내·외에서 땀 흘리며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운영 위원회가 준비한 발표와 진행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참가자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청소년들이 보내는 박수와 함성이 대강당과 대회 장소를 뒤흔들었으며, 조 고문들의 발표에는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운영 위원장 한승룡 형제가 두 손을 내밀며 “2016 FSY, Press,”라고 외치자, 청소년과 모든 고문이 “Forward!”라고 소리치며 일제히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연합조라는 가족이 되어 가정의 밤을 했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찰력은 조 고문들을 기쁘게 했다.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웃겨야 이기는 게임을 한 뒤, 이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나 복음 원리가 무엇인지 조 고문이 질문하자, 한 참가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거요!”

첫날 저녁, 참가자들은 긴 여행과 더위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각자 지침서에 깨알같이 기록한 것들을 조 고문, 조원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잠자리로 향했다. ■



둘째 날, 강화한다

화요일, 참가자 아침 영적 모임과 복음 공부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전날 밤, 조 고문들은 조원들과 한 숙소에서 함께 자며 밤새 참가자들의 숙면을 도왔다.

참가자 아침 영적 모임, 복음 공부, 하루 돌아보기는 전임 선교사들이 매일 하는 하루 열기, 경전 공부 및 하루 단기와 똑 닮아있다. 이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도와 간증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 영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복음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강화**된다.

복음 공부가 끝난 뒤 대강당에서 대회 운영 위원장 부부 아침 모임이 진행되었다. 여러 청소년들이 900여 명 앞에서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었다. 대회에서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오랫동안 간증을 쌓으며 나눌 준비를 해 온 청소년들도 있었다. 오전에 진행되는 이 모임들은 둘째 날인 화요일부터 대회가 진행되는 마지막 날인 금요일까지 매일 반복될 것이었다.

둘째 날은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이다. 전국에서 부름받은 일일

공과 교사들이 대회 장소로 모여들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과 교사들은 전국 각지의 집에서 출발하여 속리산까지 기꺼이 여행했다.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서, 청소년들이 **강화**되도록 돕는 훌륭한 복음 원리와 간증, 또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한 참가자는, “공과 중 단체 줄넘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리더, 교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공과에서 느낀 점과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다른 참가자들과 나누었다.

공과 후,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이 시대를 위해 잘 준비된 세대”라고 표현하며 “저학년 참가자들의 참여가 저조할까 염려했지만 저학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명을 받았다. 청소년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오히려 배운 것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는]”(교리와 성약 50:22 참조) 시간이 되었다. ■



공과에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 배우면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그 이후로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구도자이고 교회 회원이자 친구인 현정이를 따라 왔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고3때 다음 FSY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꼭 참석할 거예요.

참가자 강희영(중3) 자매, 영동 스테이크



셋째 날, 권유한다

수요일, 참가자들은 이제 새로운 역할에 도전했다. 전임 선교사들이 하듯,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토론 1: 회복'을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실제로 가르쳐보는 '복음 나누기 활동'을 해 보는 것이다. 이날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가 고등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활동을 이끌었고,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얻은 주님의 영을 지니고 복음 나누기 활동에 임했다.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선교사 역할을 맡은 두 명의 참가자가 질문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토론이

길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음을 진지하게 가르치는 동안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소망은 점점 더 커졌다.

때로 구도자 역할을 맡은 청소년이 토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교사 역할을 맡은 청소년들은 너무도 의연하게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스스로 기도해 볼 것을 권유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참가자들에게 있던 선교사의 꿈이 더 커졌다. 선교 사업을 나갈지 말지,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선교 사업을 꼭 나가고 싶다.”, “성인이 되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결심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게임의 밤 및 응원전이 진행되어 연합조별로 구호 및 응원가를 부르며 단합의 힘을 다졌다. 각종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연합조들이 경쟁을 펼쳤지만, 무엇보다 함께 게임을 즐기는 데 의의를 두었다. 분위기의 여세를 몰아 조별로 야식을 먹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어느덧 FSY 대회 일정의 중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

두달 전에 제 친구에게 물문경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식과 간증이 준비되지 않아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는 FSY를 통해 물문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선교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커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박경진(고1)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저는 침례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오늘 복음 나누기 활동 시간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고 가르쳐 보면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를 가르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함부로 막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르치면서, 선교 사업이 정말 보람찬 경험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가자 이현진(고2) 형제, 서울 스테이크.



넷째 날, 드높인다

목요일, FSY 프로그램의 꽃, 버라이어티 쇼와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침부터 표준 복장을 갖춘 청남 청년은 성별로 각각 집합하여, 청남들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청년은 미래의 어머니로서 위원장 부부에게 각각 훈련받았다.

또한 조별로 모여 둘씩 짝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과를 가르쳤다.(대회 시작부터 틈틈이 준비해 왔다.)

참가자들이 끼와 재능을 발표하는 버라이어티 쇼는 표준을 유지하며 느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했으며 후기 성도로서 지녀야 할 자부심을 **드높였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합창단원들의

노래와 간증이 울려 퍼지며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두 프로그램은 FSY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fsy16korea/)를 통해 생방송으로 공개되어 참가자의 부모나 FSY에 관심이 있는 모든 후기 성도들이 모바일과 컴퓨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녹화 영상이 게시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음악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희 장로와 아내 구본경 자매가 영적인 즐거움, 올바른 결혼관,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 등에 대해 가르쳤다. 간증 모임을 마지막으로, 목요일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다. ■

음악 프로그램에서, 합창단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함께 상영된 영상과 합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노래가 제 마음을 울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영의 속삭임이고 성신의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간증이 생겼습니다. FSY에 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가자 김나운(고3) 자매, 서울 서스테인크



다섯째 날, 힘써 노력한다

금요일, 참가자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되새기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힘써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성전 결혼', '힘써 노력하여 나 자신을 강화하자', '친구들을 잊지 말자' 등, 입소 때 받아 착용하고 있던 고무 팔찌에 각자 결심한 것을 적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원하는 부스에 선택하여, 조 고문들이 진행하는 각 부스에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의 표준에 대해 배웠다.

이날의 주요 프로그램은 '봉사 활동'이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배운 원리를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봉사로서 실천해 보았다. 대회 전, 청소년 중

가족 역사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43명의 참가자가 봉사 활동 도우미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모든 연합조로 각각 배정되어 봉사 활동 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참가자들이 FamilySearch.org에 접속하여 가계도를 연결하고 **나의 가족** 책자를 작성하도록 도왔다. 한 참가자(청소년) 도우미는, "꼭, 해 보길 바랍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봉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 그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라고 강력하게 권유했다.

모든 참가자가 야외 광장에 모인

가운데, 마지막 모임으로 집으로 가져가기 활동이 있었다. 선정된 몇 개의 연합조가 무대 위로 올라와 첫날 세운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는지 발표하고 간증도 나누었다. 발표하는 이와 듣는 이들은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힘써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



봉사 활동 시간에 각자 가족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조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필요에 따라 우리가 시련을 겪게도 하시지만 우릴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매주 교회에 가고 경전 공부도 하면서 간증을 쌓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참가자 권규빈(중2) 자매, 강릉 지방부.



가족 역사 사업 활동에서 조원들과 함께 가족의 추억과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 곁에 성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한 곳에 모였고, 서로 배우고 간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김준민(고2) 형제, 청주 스테이크



여섯째 날, 그리고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토 요일 새벽부터 참가자들이 퇴소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새벽부터 우중충했던 날씨는 안개비를 내렸으나, 단체 버스에 오르고 짐을 싣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참가자와 모든 지도자가 대회장을 떠났다.

FSY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대회이자, 북 아시아 지역 계획 2016의 실천이었다. 조 고문과 청소년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복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경험했다. 영적 목표를 세우고 성취함으로써 복음의 단순함을 몸소 배웠다. 잘 준비된 교사와 조 고문들, 또한 또래 친구들의 가르침과 진실한 간증을 통해 강화되었고,

예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권유해 봄으로써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높였다. 표준 내에서 재능을 뽐내고 건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드높였으며, 가족 역사 사업을 실행해 보며 봉사에 있어 힘써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FSY에서 얻은 것은 대회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FSY에서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지역 계획의 목표를 실천해 보는 그곳이 바로 FSY 대회의 또 다른 장소일 것이다. 참가자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쁨을 찾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



FSY에 다녀온 저희 자녀들은 요즘 성전에 자주 갑니다. 전국에 있는 스테이크에서 성전 방문을 하기 위해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신앙을 가진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오길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대회에 다녀온 뒤,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과 계획을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준비와 희생, 아낌없는 사랑으로 봉사해 주신 지도자들, 영적으로 잘 준비된 고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의 어머니, 김정옥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 있다 말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영을 느낄 때 친구들도 영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영으로 감화되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훗날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날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고 신화는 실재하며 물문경이 참됨을 압니다.

참가자 정예진(고1) 자매, 부산 스테이크

저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FSY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회에서 무엇보다도 복음 공부, 공과, 영적인 모임 등을 통해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 행복을 되새길 것입니다.

참가자 이용표(중2) 형제, 영동 스테이크

조 고문으로 봉사한 한 자녀를 포함하여, 저희 일곱 자녀 중 네 명의 자녀가 이번 FSY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SMYC와 EFY에 참석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 왔고, 매년 7월이 되면 이 훌륭한 모임을 또

하지 않을까 항상 고대했습니다. 올해 자녀들이 FSY를 준비하며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가족 역사 사업을 부지런히 행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회에 다녀와 나누는 간증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는 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 다른 부모들, 훌륭한 표준을 지닌 친구들, FSY 대회와 같은 훌륭한 계기들이 자녀들을 성장시켜줍니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도 드물다고 하는데, 더위 가운데 모임에 참석한 자녀들이 모임을 통해 영을 느끼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을 어떻게 배운건지, 참으로 이 대회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FSY 대회에 보낼 수 있는 기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열릴 FSY 대회에 또 다른 자녀들이 참가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참가자의 어머니 이경희 자매, 청주 스테이크.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강릉, 대전, 대구, 영동, 서울, 창원 연합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라는 주제로, 8월 13~15일, 전북 부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년 대회가 열렸다. 개회식 이후 곧바로 진행된 편안하고 다양한 게임들이 독신들을 금세 친해지게 만들었다. 게임의 열기는 무도회로 이어졌다. 춤추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공연, 보드게임, 무도회장 밖에 마련된 담력 체험 공간이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 날 안식일 모임에서는 “선교 사업을 가십시오.”라는 대전 스테이크 석동조 형제의 담대한 메시지와 “거룩한 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라”라는 구승훈 장로의 말씀이 독신들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성전 결혼, 진로, 자립에 관한 세미나도 마련되었다. 대회 운영을 총괄한 조성현 형제는 “짧은 기간만큼 176명의 참가자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한 기초를 세우다:
광주, 동, 동대문, 순천, 전주 연합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자.”(히라만서 5:12 참조)를 주제로, 8월 13~16일, 속리산 문장대 유스타운에서 청년 대회가 열렸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를 대회장으로, 180여 명의 청년들이 대회에 함께했다.

자립, 성전 결혼, 가족 역사, 선교 사업이라는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과와 활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참여형 주일학교, 특별히 개발된 휴대폰 앱을 통한 사교와 데이트, 후기 성도 사업가 초청 세미나가 청년들이 목표로 했던 세부 주제들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도왔다. 이번 청년 대회를 준비한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정인환 형제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수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라고 전했다.

너와 나, 젊음 위에서

한국의 후기 성도 청년 및 성인 독신들이 함께 여름을 보냈다.
전국 네 곳에서 진행된 청년 대회 소식을 전한다.

나와 동행하라:

부산, 서울 남, 수원, 안양, 울산, 청주 연합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모세서
6:34)라는 주제로 8월 12~16일, 3박 4일간
태안 '하늘과 바다 사이 리조트'에서 청년
대회가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진행되었다.

청년 대회 단골 프로그램인
베이스 게임, 바닷가 물놀이, 무도회,
세미나, 가정의 밤, 슬라이드 쇼 등이
준비되었으며, 일요일 성찬식에서는 잘
준비된 연사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후의 세미나였는데, '동행'이라는 대회
주제가 잘 녹아들어 있었다. 초청받은
연사들이 잘 준비된 공과를 진행했다.
동 스테이크 최한나 자매는, “일요일
세미나에서 '동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내용을 통해
동행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함께 영적인 원리에 대해 대화하며 실제로
동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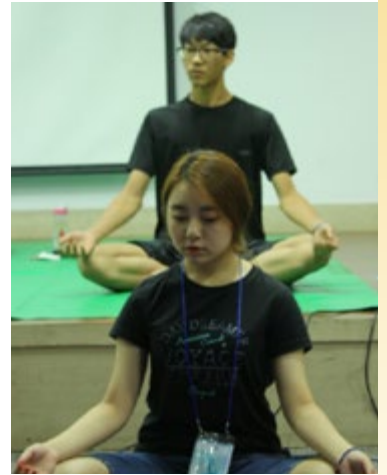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라: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교리와 성약 20:25)라는 주제로
서울 서 스테이크 청년 대회가 8월 12~14일
강화도 서해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지난 2월에 시작된 대회 준비에 60여
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참여하며 대회에
대한 애정을 공유했다. 성격 유형 검사,
게임, 부부 초청 및 후기 성도 사업가
초청 세미나, 바닷가 투어, 무도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됐다. 안식일 성찬식
말씀 시간에는 금식 간증일처럼 원하는
독신들이 자유롭게 간증을 나누었다.

스테이크 통합 이후 안면은 있지만
사실 잘 알지는 못했던 청년들이
가족적이고 편안한 대회 분위기 속에서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개봉 와드 신영훈 형제는, “불완전하게
시작한 대회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봉사과 희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11명 / 장로 4명



권하람 장로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선교부



김원진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김주은 자매
전주 스테이크
군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남나래 자매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
대전 선교부



박소영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부산 선교부



박진경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송현호 장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대전 선교부



심소희 자매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
대전 선교부



양희나 자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윤미옥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부산 선교부



이승미 자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정영훈 장로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서울 선교부



정지윤 자매
대전 스테이크
둔산 와드
런던 하이드파크
채플 방문자 센터



정진용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대전 선교부



조영진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노량진 와드
대전 선교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한국 서울 성전

서울 성전 회장: 민혜기 형제(전임: 이용환 형제)
임기: 2016년 11월 1일부터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회장: 구본철 형제(전임: 김재경 형제)

대전 스테이크

논산 지부 회장: 김영욱 형제(전임: 석동진 형제)

청주 스테이크

충주 와드 감독: 배철호 형제(전임: 이상훈 형제)